

# 한자문화권의 언어적 터부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대조 연구\*

홍민표\*\*

〈 Abstract 〉

## Sociolinguistic Contrast Study on Linguistic Taboo in the Chinese Character Cultural Sphere

This paper surveyed and compared and studied the reality of awareness on linguistic taboos, of 1,252 college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in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that fall under the Chinese character cultural spher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phrases, *Once again* and *Again* and again, that are used frequently at wedding ceremonies, appeared to be tabooed in Japan only.
- (2) Saying *drop* or *slip* to people who will have examinations were more tabooed in Korea and Japan than in China.
- (3) While Chinese do not have any taboo on even or odd numbers of money gift amount for weddings, Koreans and Japanese still have a strong thought that it should be odd numbers.
- (4) The number 4 and writing one's name in red color were tabooed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appeared to be a common taboo of the Chinese character cultural sphere.

Field : Sociolinguistics

Keywords : Taboo, Odd numbers, Number 4, Name

## 1. 머리말

어느 사회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특정 장면이나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 즉 터부(taboo)라는 생활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터부라는 것은 긴 역사 속에서 지역이나 문화마다 독자적으로 생겨나고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에 존재하는 터부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터부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나라뿐만 아니라 라틴어문화권, 아랍어문화권, 한자문화권과 같이 보다 큰 단위에서의 터부도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4」는 발음이 죽을 「死 [사, し, si]」와 같아서 한자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모두 기피하는 숫자이지만 중동의 아랍어문화권이나 라틴어문화권에서는 기피숫자가 아니다. 따라서 한자문화권 이외의 지역에서 온 사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9661)

\*\*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교수, 사회언어학

랍들은 한국이나 일본의 병원에 왜 4층이나 4호 병실이 없는지 알기 어렵다. 이처럼 발음과 관련된 언어적 터부는 특히 중국어에 많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새해가 되면 「福」자를 빨간 종이 위에 커다랗게 써서 대문에 거꾸로 붙이는데, 심재숙(2013, p.699)에 의하면 이것은 해음(諧音)현상을 이용한 새해의 기원이라고 한다. 즉 「거꾸로」는 중국어로 「倒」라고 하고 「dao」라고 읽는다. 「복이 오다」의 「오다」는 「到」인데 발음이 마찬가지로 「dao」이다. 결국 「福」자를 거꾸로 붙여 놓았으니 「福倒了」, 즉 「복이 왔다(福到了)」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중국은 언어적으로 특히 발음에 입각한 터부를 많이 만들었고 또 믿어왔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발음보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어 왔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결혼식장이나 피로연에서는 「去る」나 「終わる」대신에 「お開きする」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마친다」고 하지 않고 「행진한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터부는 문화와 지역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한자문화권, 특히 최근 인적, 물질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지역에 존재하는 언어적 터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계량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대조, 고찰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트러블은 언어 그 자체보다는 언어적 터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와 같은 해당 공동체의 언어적 룰(rule)을 무시하고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통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언어적인 터부의 연구는 앞으로 다가올 다문화 시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본다.

## 2. 터부의 개념

터부(taboo)라는 말은 영국인 쿡(James Cook, 1728-1779)선장의 여행기에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안 된다 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과 행동을 규제하는 생활규범을 의미한다. 즉 미개한 사회에서 신성하거나 속된 것, 또는 깨끗하거나 부정하다고 인정된 사물·장소·행위·인격·말 따위에 관하여 접촉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거나 꺼리고, 그것을 범하면 초자연적인 제재가 가해진다고 믿는 습속(習俗)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터부(taboo)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원시 고대 사회에서 생활규범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도 출산, 죽음, 신앙, 수험, 색깔, 숫자, 이름 등과 관련된 터부 또는 금기의식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 중, 일 3국에서는 터부(taboo)와 함께 금기(禁忌)라는 한자어도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나 특정 장면에서 사용을 기피하거나 꺼리는 말로 이미고토포바(忌み言葉)라는 말도 사용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활규범으로서의 터부(taboo)는 주로 생로병사와 같은 통과의례나 색깔, 숫자 등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나라마다 공통적인 경우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터부는 나라나 지역 또는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다른지를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 3. 언어적 터부

미나미(南, 1981)에서는 언어적 터부현상을 (1)금기의 유형, (2)금기의 목적, (3)금기의 이유, (4)금기의 대상, 등 4가지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3.1 금기의 2가지 유형

언어적 터부란 언어표현상의 금기를 전제로 실현되는데 이와 같은 언어적 금기의 결과로서 생기는 유형은 2가지이다. 하나는 할 말을 하지 않는 「言い控え(표현자제)」, 또 하나는 말을 바꾸어 하거나 다른 것을 말하는 「言いかえ(바꾸어 말하기)」<sup>1)</sup>이다. 예를 들어 상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그쪽 분(ソチラサマ)」이라고 하거나 과일 「ナシ(梨)」를 「アリノミ(ありの実)」라고 하는 것, 또는 일본 동북지방의 사냥꾼(マタギ)들이 곰(クマ)을 족제비(イタチ)<sup>2)</sup>라고 하는 것은 「言いかえ」에 해당하는 언어적 터부이다. 한편 의사들이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암환자에게 병명을 말하지 않는 것은 「言い控え」에 해당한다.

#### 3.2 금기의 목적

금기의 목적은 ①종교적 목적, ②수확·생산의 확보, 향상, ③안전 확보, ④인간관계 조정, ⑤사회 질서 유지, ⑥미적 만족(예술, 즐거움 등)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세노 사이구(伊勢の齋宮)에서는 부처(仏)를 「ナカゴ(中子)」, 승려(僧)를 「カミナガ(髮長)」, 불경(經)을 「ソメガミ」, 사찰(寺)을 「カワラブキ」, 피(血)를 「アカアセ(赤汗)」, 무덤(墓)을 「ツチムラ」, 죽다(死ぬ)를 「ナオル」처럼 불교용어나 죽음, 병과 같은 안 좋은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종교적 목적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확·생산의 확보, 향상과 안전 확보는 실제 생활상의 목적이다. (注2)에서 언급한 「山言葉」나 바다의 어부들이 사용하는 「沖言葉」,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설날에 사용하는 「正月言葉」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マタギ」들은 일단 수렵을 위해서 산에 들어가면 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에도 엄격한 규제와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수확·생산의 확보, 향상뿐만 아니라 안전 확보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관계 조정의 목적은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정 화제를 피하거나 간접적인 말투(완곡한 말투)를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현대사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사회질서 유지의 목적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조직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 안에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미적 만족(예술, 즐거움 등)을 위한 목적은 「メシヲクウ」보다는 「ゴハンヲイタダク」를 사용하는 것처럼 난폭한 말보다는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1) 본고에서 「言い控え」는 「표현자제」, 「言いかえ」는 「바꾸어 말하기」로 번역하되 본문에서는 일본어 「言い控え」「言いかえ」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꺼리는 말을 「山言葉」라고 한다. 본래는 신앙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동료의식을 강화시켜주는 은어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곰(クマ)을 「クロゲ(검은 털)」, 이리(おおかみ)를 「ヤセ(아뿔)」, 쌀(米)을 「クサノミ(풀씨)」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한편 어민이나 선원 등이 바다에서 입에 올리기 꺼리는 말을 「沖言葉」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뱀(蛇)을 「へび」라 하지 않고 「ながもの」, 원숭이(猿)를 「さる」라고 하면 「去る」가 연상되기 때문에 반대의 의미인 「得る」를 사용하여 「えてこう(得手公)」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https://kotobank.jp>).

### 3.3 금기의 이유

금기의 이유는 ①종교적, 초자연적 이유, ②사회 습관적 이유, ③심리적 이유, 등 3가지이다. 앞에서 언급한 「マタギ」들이 사용하는 「山言葉」나 바다의 어부들이 사용하는 「沖言葉」,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설날에 사용하는 「正月言葉」는 종교적, 초자연적 이유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숫자 「4」나 「13」은 불길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다. 결혼피로연에서 인사말을 할 때 「オウル」 「切レル」 「コワレル」 「カエル」 「モドル」 「ワカレル」 등의 말은 피하고 수험생에게 「落チル」 「スベル」 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 이것도 종교적, 초자연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사회 습관적 이유는 사회 습관적으로 정해진 터부적인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나이 묻는 것을 피한다든지, 의사가 암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인지 알리지 말 것인지도 여기에 속한다. 또는 신체장애자에게 장애와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 즉 차별용어를 피하는 것도 사회 습관적 이유에 해당한다. 심리적 이유는 위의 다른 3가지 이유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개인적인 감정의 측면이 터부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와의 역학관계-연령, 지위 등의 상하관계 또는 친소관계에 의한 영향이 「言いかえ」 또는 「言い控え」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심리적 이유로 볼 수 있다.

### 3.4 금기의 대상

무엇을 피해서 「言いかえ」 또는 「言い控え」 하는가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①표현의 형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②내용(화제)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현의 형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예로 「四」는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한다든다 「九」는 「苦(く)」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 그리고 「ナシ(梨)」를 피해서 「アリノミ」로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물론 이와 같은 예는 표현의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내용(화제)을 대상으로 하는 금기의 예로는 식탁에서 불결한 화제를 피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말하는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암환자에게 암에 대한 말 자체를 피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4. 조사개요

### 4.1 조사의 범위

언어적 터부의 범주를 김주영(2008, p.6)에서는 ①호칭, ②불길관련어휘, ③숫자관련어휘, ④손해관련어휘, ⑤불결관련어휘로 나누고 있고, 卞晶恩(2005, p.3)에서는 ①사람이름에 관한 금기, ②나이, 띠에 관한 금기, ③불길함과 재앙에 관한 금기, ④손실, 손해에 관한 금기, ⑤창피함과 수치에 관한 금기로 분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분류 중에서 한, 중, 일 3국인의 실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3가지 터부의식(하위항목 7가지)을 대조, 고찰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 (1) 불길함에 관한 터부의식(결혼식장, 수험생)
- (2) 숫자에 관한 터부의식(4, 9, 13, 홀수/짝수)
- (3) 이름에 관한 터부의식(색깔)

## 4.2 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한, 중, 일 3국의 수도권(서울, 북경, 동경)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일반인 중에서 유의 선택방식(convenience sampling)으로 선정한 1,252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한, 중, 일 3국에서 지인의 협조를 얻어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informant)의 구체적인 프로파일은 <표1>과 같다. 일반인의 직업은 한, 중, 일 마찬가지로 남성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이 대부분이며 여성은 회사원, 전업주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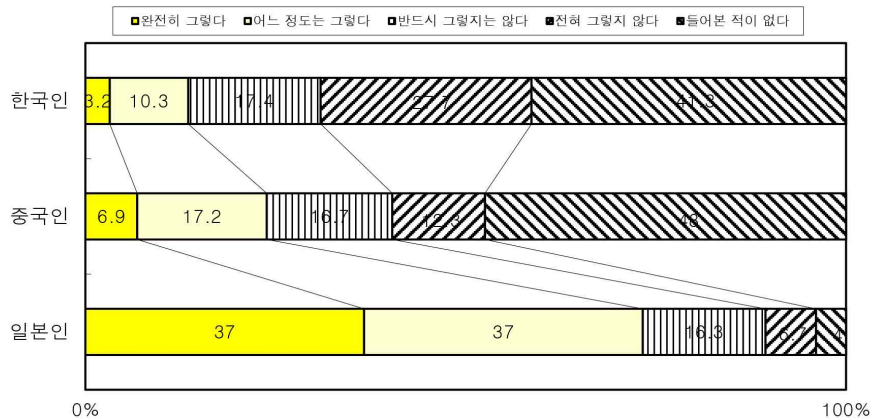
<표1> 조사대상자의 프로파일

		남성(평균연령)	여성(평균연령)	소계	합계
한국인	대학생(대) <sup>3)</sup>	102명(23.6세)	120명(21.1세)	222명	380명
	일반인(일)	73명(44.7세)	85명(43.6세)	158명	
중국인	대학생(대)	90명(19.7세)	103명(19.8세)	193명	404명
	일반인(일)	86명(36.0세)	125명(34.1세)	211명	
일본인	대학생(대)	64명(19.9세)	174명(19.3세)	238명	468명
	일반인(일)	121명(54.0세)	109명(55.2세)	230명	
합계	대학생(대)	256명(21.1세)	397명(20.1세)	653명	1,252명
	일반인(일)	280명(44.9세)	319명(44.3세)	599명	

## 5. 조사결과 및 고찰

### 5.1 불길함에 관한 터부의식

#### 5.1.1 결혼식장에서 「다시 한 번」 「재삼」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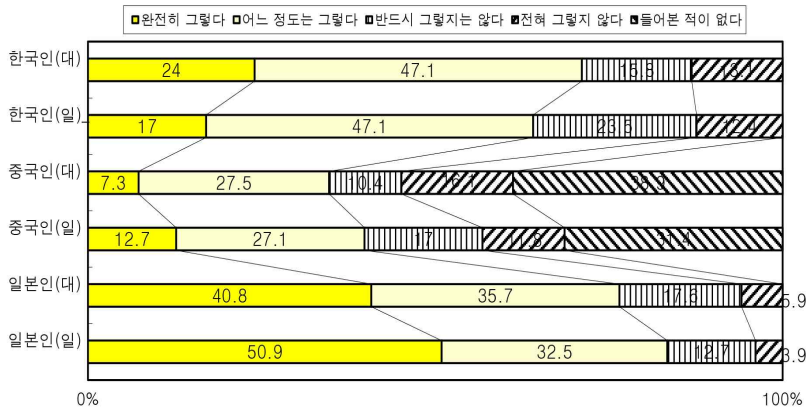


<그림1>결혼식장에서 「다시 한 번」 「재삼」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3) <표1>에서 (대)는 대학생, (일)은 일반인을 가리킨다(이하 같음).

〈그림1〉은 결혼식장에서 주례나 사회자, 또는 가족 대표가 인사말을 마무리 할 때 앞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다시 한 번」 「재삼」 과 같은 말을 어느 정도 터부(taboo)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인데 이것을 보면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일반인들은 74%가 (어느 정도는/완전히) 「그렇다」 고 응답해 결혼식장에서의 언어사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본의 결혼식장에서는 「다시 한 번」 「재삼」 과 같은 「重ね言葉(중복언어)」 는 재혼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절대적인 터부 언어로 알려져 있다. 「重ね言葉」 이외에도 「死ぬ」「死去」「捨てる」「滅びる」「枯れる」「崩れる」「壊す」「終わる」 와 같은 말은 결혼식장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忌み言葉(금지어)」 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お忙しいところ~」 라는 말도 죽음을 의미하는 「亡」 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ご多用の中~」 라고 말하거나 초대장 등에서도 「おいそがしいところ~」 라고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림1〉과 같이 결혼식장에서 「重ね言葉」 나 「忌み言葉」 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미나미(南, 1981)에서 언급한 「言い控え」 에 해당하는 것이고 「お忙しいところ~」 를 「ご多用の中~」 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言いかえ」 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言いかえ」 의 예는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ケーキを切る」 대신에 「ケーキにナイフを入れる」 로, 「最後」 를 「結ぶ」 로, 「四(し)」 를 「四(よん)」 으로, 「九(く)」 를 「九(このこのつ)」 로, 「もう一度」 나 「また」 를 「改めて」 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미나미(南, 1981)에서 말하는 「言いかえ」 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도 「케익을 자른다」 를 「케익커팅」 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신랑, 신부 퇴장」 을 「신랑, 신부 행진」 으로 바꾸어 말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한 번」 「재삼」 과 같은 말에 대해서는 터부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도 한국인보다는 높지만 이와 같은 말에 대해서 터부의식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완전히)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인보다는 대학생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에 대한 터부의식은 점차 약해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2 수험생에게 「떨어지다」「미끄러지다」 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2>수험생에게 「떨어지다」「미끄러지다」 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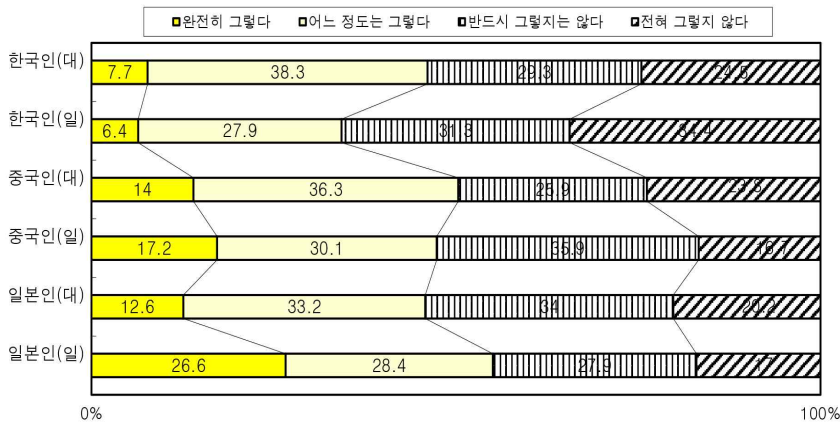
〈그림2〉는 수험생에게 「떨어지다」「미끄러지다」 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부(taboo)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인데 이것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60%이상(어느 정도는/완전히) 「그렇다」 고 응답하고 있으나 중국인은 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40%가 넘지 않는 것

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인들은 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완전히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를 넘고 있어 한국인이나 중국인보다 「떨어지다(落ちる)」 「미끄러지다(滑る)」에 대한 터부의식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에도 언어적 터부가 많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이 발음과 관련된 것이고 <그림 1,2>와 같이 의미와 관련된 언어적 터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장면에서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미나미(南, 1981)에서 말하는 「言い控え」이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 초자연적 또는 심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심재숙(2013, p.701)에 의하면 수험생과 관련된 금기어로 한국에는 이밖에도 「계란 먹고 시험 보면 떨어진다.」 「시험 보기 전에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깎으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때 계란은 둥그런 모양 때문에 어느 곳에선 붙을 수가 없다는 점이 연상이 되기 때문이고, 절대적인 힘으로 머리는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삼손도 머리가 길었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머리를 자르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 5.2 숫자에 관한 터부의식

숫자는 원래 수를 세는 부호이나 오랜 기간 숫자를 사용해 오면서 사람들은 숫자에 특별한 뜻과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나라와 지역,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민족은 모든 숫자에 대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숫자의 쓰임에는 자연스럽게 금기가 생겨났고 많은 숫자가 금기의 대상이 되었다(김주영 2008, p.44).

### 5.2.1 숫자 「4」는 느낌이 불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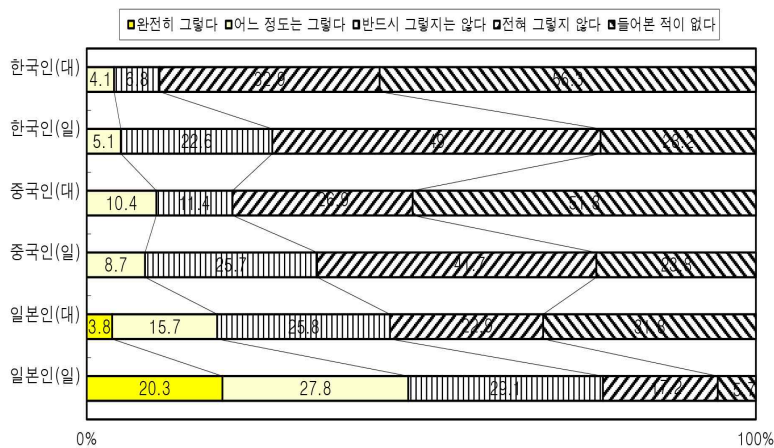


<그림3>숫자 「4」는 느낌이 불길하다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한, 중, 일 3국에서는 공히 50% 전후가 숫자 「4」는 느낌이 (완전히/어느 정도는)불길하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한자문화권 3국 언어의 「4」 발음(사, し, si)에서 죽음(死)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는 44번 탑승구가 없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호텔이나 병원의 4층도 F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도 병원에 4층이나 4호 병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골프공과 같은 상품의 포장도 4개씩은 하지 않을 정도로 숫자에 대한 터부는 비즈니스에도 반영된다. 가끔 화제가 되

고 있는 북한의 정찰총국은 1~7국까지 있는데 4국은 「죽을 사(死)」자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빠졌다는 보도도 있었다(조선일보 2018.2.24).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집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판에서 「4」로 끝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숫자에 대한 터부(禁忌)의식이 강하다. 한편 중국에서 숫자 「4」를 기피하게 된 원인은 「死」와 발음이 같다는 것뿐만 아니라 글자의 모양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四」의 「口」는 사방을 둘러싼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고 「丿」는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四」는 이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뜻을 확대시켜 죽음과 연관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특정 숫자를 기피하는 것은 미나미(南, 1981)에서 말하는 종교적, 초자연적 또는 심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 5.2.2 숫자 「9」는 느낌이 불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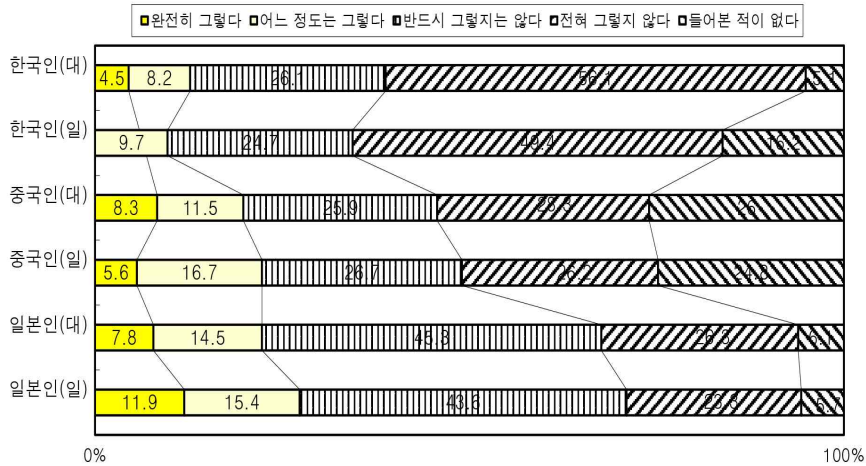


<그림4>숫자 「9」는 느낌이 불길하다

<그림4>는 숫자 「9」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부(taboo)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인데 이것을 보면 숫자 「4」와 달리 일본의 일반인 이외에는 터부(禁忌)의식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숫자 「9」에 대해서 일본 일반인 응답자의 50% 가까운 사람이 숫자 「9」는 (완전히/어느 정도는) 불길하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괴로움」「고생」의 의미가 있는 일본어 「苦」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은 (완전히/어느 정도는) 불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본 일반인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숫자 「9」에 대한 터부(禁忌)의식은 일본에서도 확연히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숫자 「9」는 중국에서 매우 환영받는 숫자라고 한다. 김주영(2008, p.48)에 의하면 중국에서 「九」라는 숫자는 하늘을 상징하고 고대에는 하늘의 명을 대신하여 인간을 다스리는 황제를 상징하는 고귀한 숫자였기 때문에 황궁 건축물의 수도 대부분이 「九」나 「九」의 배수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일례로 북경의 자금성(紫禁城)에는 모두 9,981칸의 방이 있는데 이는 「九」와 「久」가 동음이어서 황권과 천가가 영원하다는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한다. 심재숙(2013, p.697)에 의하면 숫자와 관련된 중국인의 민속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게 이처럼 숫자의 해음(諧音)현상에 의해 길흉과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4) 楊德奉(1999)(김주영 2008, pp.4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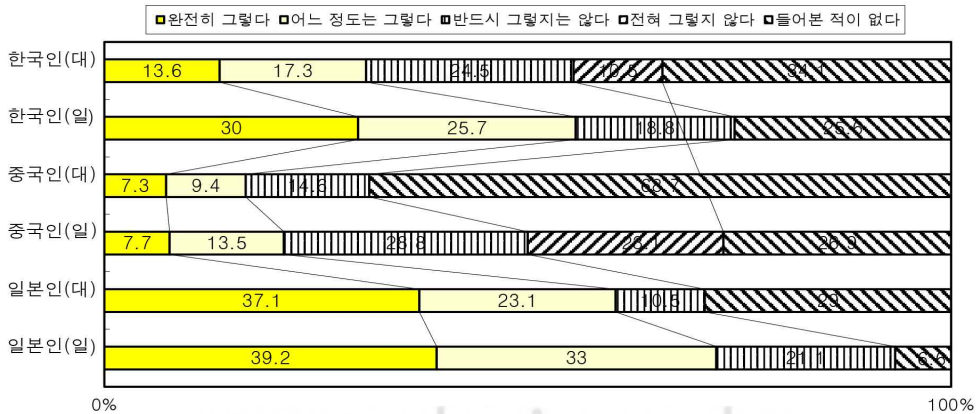
5.2.3 숫자 「13」은 느낌이 불길하다



<그림5>숫자 「13」은 느낌이 불길하다

<그림5>는 숫자 「13」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기(taboo)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인데 이것을 보면 숫자 「4」나 「9」와 달리 한, 중, 일 3국 모두 금기의식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래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자문화권에서 「4」를 기피하는 것처럼 서양에서 기피하는 숫자이다. 1980년에 개봉된 미국의 공포 영화 「13일의 금요일(FRIDAY THE 13TH)」로도 많이 알려진 이 말의 유래는 여러 가지 속설이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한자문화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양의 많은 건물 또는 아파트 방 번호나 비행기의 좌석 번호에는 12 다음 층이나 번호는 「12A」로 표기하거나 「13」을 아예 건너뛰어 「14」로 하는 경우가 많다. 공항에도 13번 게이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서양에서 「13」을 기피하는 것은 미나미(南, 1981)에서 말하는 종교적 또는 심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5.2.4 결혼식의 축의금은 짝수로 하지 않는다.



<그림6> 결혼식 축의금은 짝수로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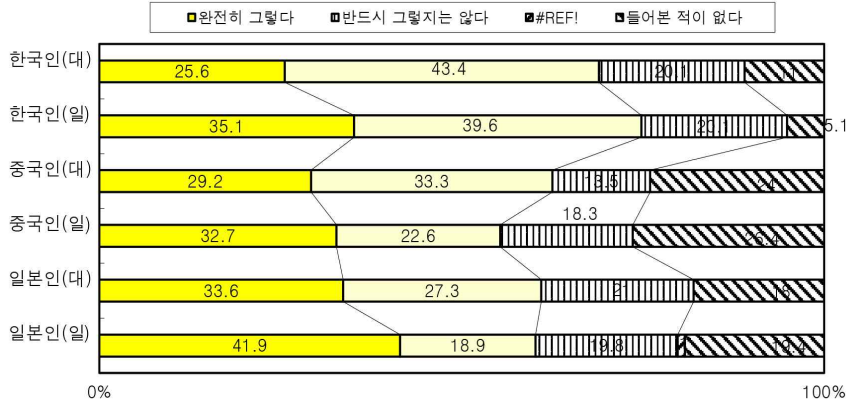
〈그림6〉은 결혼식의 축의금은 짝수로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인데 이것을 보면 (완전히/어느 정도는) 「그렇다」의 비율이 한국 일반인과 일본인은 50%를 넘고 있는데 비해서 중국인은 20% 전후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인은 대학생이나 일반인 모두 60%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결혼 축의금의 짝수, 홀수에 대한 터부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일본인이 이렇게 결혼 축의금으로 짝수를 꺼리는 이유는 신랑, 신부 둘이 하나가 되어 새 출발하는 결혼을 축하하는 축의금으로 2만엔이나 4만엔처럼 짝수로 하면 둘로 나누어지는 이별을 연상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반드시 축의금으로 2만엔을 내고 싶을 때는 1만엔 1장과 5천엔 2장을 봉투에 넣어 짝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할 정도로 일본인들은 홀수, 짝수에 대한 터부 의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홀수 중에서도 9만엔은 「苦」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고 반대로 짝수라도 8만엔은 「未広がりの人」, 즉 끝으로 갈수록 넓어진다는 이미지가 있어 오히려 환영받는다<sup>5)</sup> 한다. 결혼 축의금 이외에도 좋은 일이나 장면에서는 홀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 일본처럼 좋은 일에는 홀수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는데 이는 중국의 음양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홀수는 경사스러운 양의 숫자, 짝수는 음의 숫자로 여겨졌던 중국의 음양(陰陽) 사상에 의거하여 경사스러운 날에는 짝수가 아닌 홀수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결혼축의금을 짝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sup>6)</sup>. 일본인들이 홀수를 선호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음양사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일본의 국기(國技)인 스모(相撲)대회도 전부 홀수 달에 열리고 일본의 절기를 나타내는 중요 연중행사(節句)도 전부 홀수 달에 있다. 아이들의 성장을 축하하고 액막이를 하는 연중행사인 「七五三」도 남자 아이는 3세와 5세, 여자 아이는 3세와 7세 때 부모를 따라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 등, 일본인들의 홀수 선호의식은 생활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은 「好事成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일은 쌍으로 온다고 믿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홀수를 싫어하고 짝수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인들은 길한 것을 좇고 흉한 것을 피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쁜 일에는 홀수를 꺼리고 짝수를 좋아하며 안 좋은 일에는 짝수를 꺼리고 홀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림6〉도 이와 같은 중국인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결혼할 때는 홀수 날을 택하는 것은 꺼리는데 이는 「홀아비와 과부의 재앙(鰥寡之災)」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卞晶恩, 2005, p.58-59). 이처럼 같은 한자문화권인 한, 중, 일 3국이라도 홀수, 짝수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터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5) 다만 10만원은 하나의 완성된 단위나 숫자이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 5.3 이름에 관한 터부의식

#### 5.3.1 남의 이름은 붉은색으로 쓰지 않는다.



<그림7>남의 이름은 붉은색으로 쓰지 않는다.

<그림7>은 남의 이름을 붉은색으로 쓰는 것에 대한 터부의식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한, 중, 일 3국 모두 (완전히/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중, 일 3국에서 이와 같이 이름을 붉은색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강한 터부의식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붉은 색은 피(血)의 이미지가 있고, 따라서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과거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제는 붉은색 글자는 오직 황제만이 쓸 수 있다고 했고, 만일 황제 이외의 다른 사람이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면 반역으로 처형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에도 전해져 붉은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남의 이름을 붉은색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터부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한, 중, 일 3국 중에서 가장 강한 터부의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6.25 전쟁 당시 사망한 사람들을 확인할 때, 명부에 붉은색으로 이름을 적거나 줄을 그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붉은색으로 남의 이름을 적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다<sup>6)</sup>. 한편 한국에서는 축의금 봉투를 흰색으로 사용하지만 중국에서 축의금 봉투로 흰색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중국에서 흰색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례식 때 주로 사용하는 색이라고 한다. 그러나 붉은색은 부와 행운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고 믿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무척 좋아하는 색깔이다. 젊은 여성들이 붉은색 옷을 즐겨 입는 것도 귀신이 부인으로 삼기 위해 잡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심재숙, 2013, p.703). 중국의 국기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호텔을 가도 온통 붉은색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중국인들이 붉은 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NHK紅白歌合戦」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홍백(紅白)이다. 결혼축의금을 넣는 봉투도 흰색바탕에 「のし(熨斗)」라고 하는 붉은 색 장식품으로 흰색과 붉은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일본인들이 경사스러운 날에 손님을 대접할 때 내놓는 생선인 도미(タイ)도 흰색 바탕에 붉은색 비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온통 빨간색인 코카콜라, 산타클로스 복장 등 누군가의 시

6) <https://theuranus.tistory.com/4595>

선을 사로잡는 색으로서 빨강의 마법은 광고디자인 등 마케팅에서 적극 활용돼왔다. 한국에서도 전국을 물들였던 월드컵 응원단의 빨간 티셔츠바람 이후 열정과 감성의 색으로 우리의 일상과 한결 가까워졌다. 역사적으로도 오방색 중의 하나인 빨강은 한국에서도 높은 신분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고구려 고분 강서중묘의 「사신도」 중 붉게 칠한 주작(朱雀)은 불과 불멸의 화신이었고, 주철이 들어간 도자기 목공예품은 특정신분의 소유물이었다. 이처럼 빨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력과 뜨거운 열정의 징표이자, 태양, 불, 피의 힘이 담겨있는 원초적 에너지 또는 불멸과 생명의 상징이었다<sup>7)</sup>.

## 6. 마무리

지금까지 한자문화권 한, 중, 일 3국의 대학생과 일반인 1,252명을 대상으로 언어적 터부에 대한 의식실태를 대조 고찰하였는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결혼식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시 한 번」 「재삼」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특히 터부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수험생에게 「떨어지다」 「미끄러지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중국보다 한국과 일본에서 강하게 터부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결혼식 축의금의 홀수, 짝수에 대한 터부의식은 중국인들에게는 거의 없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에게는 홀수로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숫자 「4」와 남의 이름을 붉은색으로 쓰는 것은 한자문화권 한, 중, 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터부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南不二男(1981) 「言葉のタブー言い換え・言い控え」 『森岡健二・宮地裕・寺村秀夫・川端善明 編集, 講座日本語学 9, 敬語史』 明治書院, pp.43-65
- 김주영(2008) 『중국어의 언어금기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3-47
- 卞晶恩(2005) 『中國 禁忌文化 研究 : 言語禁忌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5-68
- 楊德奉(1999) 『漢語與文化交際』 北京大學出版社
- 신세미(2005.3.4) 「금기의 색깔 빨강 이야기(빨강-매혹의 에로티시즘에서 금기의 레드콤플렉스까지, 김용희 지음, 시공사, 2005, 서평)」 『문화일보』
- 심재숙(2013) 「금기어(禁忌語)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3, 한국국학진흥원, pp.685-720

7) 신세미(2005.3.4.)

〈 要 旨 〉

漢字文化圏の言語的タブーに関する社会言語学的対照研究

この論文は漢字文化圏の韓・中・日3国の大学生と一般人1,252人を対象に言語的タブーに関する意識実態を対照考察したものであるが、主な調査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

- (1)結婚式場でよく使われる「もう一度」「再三」という言葉は日本にのみタブー視されることが確認された。
- (2)受験生に「落ちる」「滑る」という言葉を使うのは中国より韓国と日本で強くタブー視されることが分かった。
- (3)結婚式の祝儀の奇数、偶数に対するタブー意識は、中国人にはほとんどなく、韓国人と日本人には奇数にすべきだという意識が強いことが分かった。
- (4)数字「4」と他人の名前を赤で書くのは漢字文化圏の韓・中・日の3カ国で共通してタブー視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

論文分野：社会言語学

キーワード：タブー、奇数、数字4、名前

■ 홍민표(洪珉杓)

계명대학교 교수

hmp@kmu.ac.kr

■投稿日	：	2020년	3월	17일
■審査開始	：	2020년	4월	25일
■審査完了	：	2020년	5월	19일
■掲載確定	：	2020년	5월	27일